

도시와 자연, 사람이 하나로 숨 쉬는 그린 랜드마크입니다

건축물 개요

- 마곡중앙광장은 서울의 차세대 경제 거점인 마곡지구의 중심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하 연결 광장입니다.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, 첨단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너지 절약형 그린빌딩의 표준을 제시합니다.
- 지하철 5·9호선 및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 연결, 시민 휴식공간 제공, 문화 공간(주요 쇼핑몰 및 미술관 등) 연결, 서울식물원 녹지축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디자인 전략: 비움과 연결의 미학(Design Concept)

마곡중앙광장의 디자인은 “땅에서 피어나는 도시의 숨결”을 시각화하였습니다.

- 원형 선쿰(Sunken)의 개방감: 거대한 원형 광장을 지하로 개방하여 지상과 지하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. 이는 지하 공간 특유의 답답함을 해소하고,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공간 경험을 제공합니다.
- 녹색 가로(Green Axis)의 확장: 서울식물원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이 광장 내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인공 구조물과 자연 조경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져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친환경 경관을 형성합니다.
- 상징적 랜드마크: 낮에는 자연채광이 깊숙이 스며드는 ‘빛의 통로’가 되고, 밤에는 경관 조명을 통해 마곡지구의 야경을 완성하는 ‘도시의 등대’ 역할을 수행합니다.

핵심 친환경 가치 및 인증 현황(Sustainability)

설계 단계부터 “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”을 목표로 구축되었으며,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건축물의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

- 가. 녹색건축인증 (G-SEED) 그린 4등급 (일반): 토지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 성능 확보
- 나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A등급: 에너지 소모량 최소화 및 운영 효율 최적화
- 다. BF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) 우수: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극대화

기술적 특징: 자연 공생형 에너지 솔루션

디자인과 기능이 결합된 마곡광장만의 핵심 기술 요소입니다.

- 패시브 디자인(Passive Design): 중앙 광장을 지하로 완전히 개방한 선쿰 구조는 자연채광을 지하 2층까지 유입시켜 조명 에너지를 절감하며, 굴뚝 효과를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으로 공조 부하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.